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공허감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돌봄

이 재 순* 김 미 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에서 경험되는 공허감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에서 경계선 성격장애가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군으로 간주하는 원점수 39점 이상의 8명을 표집하여 연구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에 따라 먼저 전체를 인식하기 위하여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며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공허감에 합당한 현상을 의미단위로 분석하고, 의미단위를 학문적인 용어로 주제화시켜 하위 구성요소가 39개 도출되었다. 39개 하위 구성요소는 11개 요소로 통합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에 대한 자각’, ‘무망감으로 인한 고통’, ‘삶의 의욕저하’, ‘비존재적인 느낌’, ‘불안정한 신앙’, ‘자신감 결여’, ‘관계의 어려움’, ‘삶의 통제력 상실’, ‘반복적인 자살사고’, ‘중독 경향성’, ‘극복에 대한 기대’이다. 이와 같이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자가 경험한 공허감의 핵심에는 무에 대한 자각으로 정서의 마비를 경험한다. 즉, 좋은 대상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내적 구조가 파편화되어 정체성의 혼돈과 정서의 불안정성 및 관계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의 공허감 해소를 위하여 기독교적인 상담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경계선 성격장애, 공허감, 현상학, 정서의 마비, 정체성의 혼돈

• 논문 투고일: 2017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5월 5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11일

*서울한영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 본 연구는 서울한영대학교 이재순의 박사학위 논문(2016년 2월, 지도교수: 김미경)을 일부 발췌·수정한 것임.

I. 여는 글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아상 및 정동의 불안정성과 현저한 충동성¹⁾을 보이고 있는 장애로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더불어 이 시대의 장애라고 할 만큼 발생률이 높다.²⁾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유병률의 중간값은 1.6%이지만, 5.9%까지 높게 보고되기도 한다. 일차 진료 체계에서의 유병률은 6%, 정신과 외래 환자에서는 10%, 정신과 입원환자에게서는 20%까지 보이며, 경계선 성격장애의 75% 정도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³⁾ 오늘날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임상 실제에서 범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심각한 연구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발생률이 높아서 그 연구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절실하다.⁴⁾ 실제 상담과 관련하여 경계선 성격장애자와 경계선 성격 성향자들이 상담실을 많이 찾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기독교 여성들이다. 성격장애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과 불화를 유발하여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고통과 불행을 줄 수 있다.⁵⁾ 이러한 경향성은 교회 내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시각에서의 연구가 시급하다.

현재 경계선 성격의 불안정한 정서, 충동성, 양육환경과 신체적, 정서적 및 성적 학대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DSM-5에 제시되어 있는 경계선 성격 장애 진단기준에서 7번째 항목인 만성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724.

2) Otto F.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윤순임 외 공역,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서울: 학지사, 2014), 3.

3) AP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 725-726.

4)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3.

5) 권석만, 『현대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5), 737.

적 공허감에⁶⁾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자가 상담장면에서 실제적으로 만난 대부분의 경계선 성격 성향자들은 주로 만성적인 공허감을 호소하였다. 이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양적 연구보다는⁷⁾ 경계선 성격에서의 만성적인 공허감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다고 본다. 경계선 성격은 일반적으로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만성적으로 혼란스러운 치료 상황으로 나타난다. 경계선 성격에서의 주요 방어기제인 분열(splitting)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치료 시간에서 만성적으로 ‘공허한’ 질적 특성을 유발할 수 있다.⁸⁾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공허감의 본질을 파악 하는 것이다. 이들이 경험하는 공허감의 본질이 파악된다면 경계선 내담자들을 위한 보다 유용한 상담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

‘경계선’이라는 용어는 신경증과 정신병,⁹⁾ 정신분열병과 비정신분열병¹⁰⁾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¹¹⁾ 이에 비해 Otto Kernberg는

6) AP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isorder*, 5th ed., 723.

7) E. D. Klonsky, “What Emptiness? Clarifying the 7th Criterion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22, no.4(2007): 418-426.

8)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215-216.

9) A. Stern, “Psychoanalytic Investigation and Therapy in the Borderline Group of Neuroses,” *Psychoanalytic Quarterly* 7(1938): 469-489에서 재인용; M. Schmideberg, “The Treatment of Psychopaths and Borderline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1947): 45-55에서 재인용.

10) D. A. Noble, “Study of Dreams in Schizophrenia and Alli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7(151): 612-616; R. Ekstein, “Vicissitudes of the ‘Internal Image’ in the Recovery of a Borderline Schizophrenic Adolescent,”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19(1955): 86-92에서 재인용.

경계선 성격장애가 안정적인 형태의 병리적인 자아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성격 병리를 ‘경계선 상태’(borderline conditions)나 ‘경계선’이라는 용어보다는 경계선 성격 조직(borderline personality structure)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¹²⁾ Frosch는 경계선 내담자가 현실과의 관계나 현실감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정신병 내담자와 달리 현실검증 능력은 유지됨을 강조하였다.¹³⁾ 정신병과 경계선 성격구조의 변별은 현실검증 능력의 여부에 깊이 관련된다.

발달적 측면에서 현실검증 능력은 분화된 자기표상 및 대상표상을 포함하는 내재화된 대상관계가 확립된 것으로 분리 개별화 단계로 발달한 것이다. 분리 개별화의 재접근 단계에서 현실검증 능력, 정체성 혼돈, 분열을 중심한 방어체제가 조합을 이룰 때, 경계선 성격구조의 특징이 확립된다.¹⁴⁾ 자아 발달의 첫 단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열은 가까운 관계에서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의 융합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에서의 현실검증 능력은 다른 영역에서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다.¹⁵⁾ 경계선 성격의 사람들이 친밀한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는 타자에 대한 점증적인 왜곡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계선 성격 개인들의 대인관계는 혼란스럽고 피상적이며,¹⁶⁾ 분열된 대상표상으로 인하여 대상에 대한 원

11) M. Schmideberg, “The Treatment of Psychopaths and Borderline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1947): 45–55; Ekstein, “Vicissitudes of the ‘Internal Image’ in the Recovery of a Borderline Schizophrenic Adolescent,” 86–92.

12) Otto F. Kernberg, *Object Relations Theory and Clinical Psychoanalysis*, 이재훈 · 양은주 역, 『대상관계이론과 임상적 정신분석』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48.

13) J. Frosch, “The Psychotic Character: Clinical Psychiatric Condition,” *Psychiatric Quarterly* 38(1964): 81–96.

14) Otto F. Kernberg, *Internal World and External Reality*, 이재훈 역, 『내면세계와 외부현실』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1), 32.

15) F. L. Summers, *Object Relations Theories and Psychopathology*, 이재훈 역,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4), 290.

16) Kernberg, 『내면세계와 외부현실』, 23.

시적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반복하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패턴을 보인다. 경계선 성격 장애는 널리 퍼져 있고 오래 지속되는 정신의학적 장애로 인구의 0.2~4.6%가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⁷⁾

정상발달에서 분열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은 1~3세 사이에 통합된다. 이를 통해 좋고 나쁜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내적 세계가 가능해지며, 현실세계의 복잡성에 대해 좀 더 적응할 수 있게 인성의 융통성이 생겨난다. 내적 대상들의 통합은 인지적 발달과 개인적 발달에서 좋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나쁘고 좌절스러운 경험보다 더 많이 주어지는 경우이다.¹⁸⁾

반면에 정체성 혼돈(diffusion)은 분열된 내적 구조의 파편화된 특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정체성 혼돈의 증상은 자신에 대한 만성적인 공허감, 모순적인 자기지각, 모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¹⁹⁾ 정체성 혼돈은 의미 있는 동일시 과정이 손상되었다는 것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나타낸다.²⁰⁾ 통합되지 않은 자기 대상으로 인해 특정 순간 주관적 경험이 다양하게 결정되며, 경험이 비연속적이라는 느낌이 생겨나고, 관계, 의미 있는 일, 목표 또는 가치에 헌신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난다.²¹⁾ 정상적인 발달 경로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분열된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을 통합해내지 못하는 무능력은 개인으로 하여금 경계선 성격 구조를 가지게 한다.

통합된 자기표상과 대상표상 간의 정상적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위협

17) M. M. Weissman, "The Epidemiology of Personality Disorder," in *Psychiatry*, eds. R. Michels, A. M. Cooper, S. B. Guze, L. L. Judd, A. J. Solnit, A. J. Stundard, & M. M. Weissman(Philadelphia: Raven-Lippincott, 1993), 1-11.

18) Frank E. Yeomans, John F. Clarkin, & Otto F. Kernberg, *A Primer of Transference-Focused Psychotherapy for the Borderline Patient*, 윤순임 외 공역, 『경계선 내담자를 위한 전이초점 심리치료 입문』(서울: 학지사, 2013), 36.

19) Kernberg, 『내면세계와 외부현실』, 21-22.

20) W. W. Meissner, *Psychotherapy and the Paranoid Process*, 이재훈 역, 『편집증과 심리치료』(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191.

21) Yeomans, Clarkin, & Kernberg, 『경계선 내담자를 위한 전이초점 심리치료 입문』, 37.

받을 때, 대상관계에 의해 내적으로 자기가 버림받거나(abandonment) 또는 내적 대상이 상실될 때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병리적인 주관적 체험이 생겨난다. 이러한 체험에는 삶이 공허하고 쓸모없이 느껴지는 것, 만성적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것과 지루해 하는 것, 외로움을 체험하고 극복하는 정상적인 능력이 상실된 것이 포함된다. 주관적으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담자는 자주 공허감을 호소한다.²²⁾

2. 공허감

공허감이란 차있지 않고 비어 있음을 의미한다.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과 같은 끝 모를 허전함과 비어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²³⁾ 경계선 성격의 사람들은 분열에 의해 고립되고 폐쇄적이다. 이들은 삶이 쓸모없고 무의미하며 공허하여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고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 이들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공허해 보이며 감정적으로 움츠러든다.²⁴⁾ 통합된 자기가 결여되어 있고 자기와 통합된 내적 대상과의 정상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을 때, 일상생활에 대한 좀 더 뿌리 깊고 만성적인 공허감과 무의미한 느낌이 뒤따른다. 특히 원시적인 해리나 분열과 같은 적극적 기제가 지배적일 때 강해질 수 있다.²⁵⁾

개인이 확립하는 첫 번째 사회적 관계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리비도적 대상의 초점이 되고 아기의 입이 태도의 초점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리비도적 상황은 포만감과 공허감의 상태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한다.

22)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225-226.

23) 조성호, 『경계선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2000), 49, 101-103.

24) Meissner, *Psychotherapy and the Paranoid Process*, 183.

25)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233.

아이는 배고플 때 공허감을 느끼고 만족하게 먹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데 박탈이 발생할 경우, 공허감은 아이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²⁶⁾ 이처럼 구강기 박탈은 고착을 가져오고 공허감은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

분리 개별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유기 우울증이 찾아온다. 유기 우울증은 우울증, 공황, 격노, 죄의식, 무력감, 절망, 공허감을 불러오며, 자기는 상처받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내적 공허감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사고나 감정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표현한다. 그들은 무감각하게 삶을 지탱하면서 삶의 중심으로 어렴풋이 다가오는 공허를 볼 수 있다.²⁷⁾ 아이의 자기가 발달하는 단계에서 아이의 과대주의를 반영해주는 부모의 능력에 결함이 있다면, 아이의 과시적 욕구가 좌절되어 분열되거나 억압되어 의식적인 감정은 무기력하고 우울하며 공허한 특성을 띄게 된다.²⁸⁾ 일시적인 파편화 경향성과 함께 자기의 만성적인 약함을 드러내는 일차적 구조 결함의 징후는 심각한 자존감의 장애와 깊은 내적 공허감으로 인한 고통을 가진다.²⁹⁾

3.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경계선 성격장애 개인들은 극단적인 행동과 정서로 인하여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적대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치료관계에서도 반복된다.³⁰⁾ 실제 임상 장면에서 이들은 불안정한 자아 상태 뿐 아니라 상반된 정서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불안정한 치료관계를 만들고, 작업 동맹

26) R. D. Fairbairn,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이재훈 역,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2003), 19-20.

27) J. F. Masterson, *Search for the Real Self*, 임혜련 역, 『참자기』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85-105.

28) Summers,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 371-372.

29) H.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이재훈 역, 『자기의 회복』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6), 21-22.

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집단의 연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성격장애와 관련된 특성은 임상집단과 비 임상집단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³¹⁾ 본 연구에서는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 특성을 소유한 사람들을 변별하려는 목적으로 Morey가 제작³²⁾하고, 홍상황과 김영환이 번안³³⁾하여 타당화한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0-69점이다.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하는 위험군으로 간주하는 39점 이상의 여성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참여자 5	참여자 6	참여자 7	참여자 8
연령	66세	66세	46세	37세	46세	48세	43세	42세
혼인상태	사별	사별	미혼	유	유	유	유	유
직업	사모	주부	학원 강사	주부	사업	아르바이트	공부방 교사	주부
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공허감 발현시기	사춘기	초등 학교	초등 학교	초등 학교	사춘기	대학생	초등 학교	초등 학교
공허감을 강하게 느낀사건	학업좌절 경제적 어려움	아버지의 폭력	남자 친구 의 죽음	결혼	할머니의 죽음	실연	가정 불화	적응 문제

30) C. Zittel & D. Western,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Findings o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What Every Clinician should Know," *In Session Psychotherapy in Practice* 4, no.2(1998): 5-20.

31) T. J. Trull,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I.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1995): 33-41.

32) I. C. Morey,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1); 홍상황 · 김영환,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7권 1호 (1998): 259-271에서 재인용.

33) 홍상황 · 김영환,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259-271.

2) 자료 수집

예비조사(pilot study)를 통하여 적합성을 검토한 뒤 수차례의 심층면접과 관찰을 통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처음 비구조화된 면접 방식으로 시작하여 점차 연구의 방향성과 효율적인 면담을 위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가 포화될 수 있도록 나선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대략 3~5회, 회당 1시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누락되거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하여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의 내용들은 전체 녹음되고 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A4 용지 22장~38장으로 평균 28.5장 정도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현상에 관하여 무엇을 경험하는가? 현상에 대한 경험에 전형적으로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질문이 주어져야 한다.³⁴⁾ “공허감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주로 어떤 상태에서 느끼니까?”, “얼마나 자주 느끼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공허감에 대한 느낌을 탐색하였다.

4. 자료 분석과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복잡한 인간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며 대상자의 가치, 의미, 인식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³⁵⁾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현상학적 연구이다. 현상학은 대상의 어떤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주어진 모습, 즉 ‘현상’을

34)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2nd ed. 조홍식 외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13), 96.

35) J. M. Morse & P. A. Fiel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2nd ed. 신경림 역, 『질적 간호연구방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26.

출발점으로 삼는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분명 과학적 현상이며, 우리의 의식에 하나의 대상으로 주어지며, 대상으로 주어진다. 는 것은 그 현상의 ‘의미’가 우리 정신적 활동에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⁶⁾ 동일한 의미로 이해된 모든 표현들은 동일하게 규정된 심리학적 성질을 가진 동일한 의미지향으로 부여되어 있다. 명제 의미는 사람들과 작용들의 수에 따라 여러 개로 불어나지 않고, 판단은 관념적이고 논리적인 의미에서 하나이다.³⁷⁾ 경계선 성격 성향자들이 경험한 공허감이라는 현상은 과학적 현상이며, 공허감이 각 개인에게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으로서의 공허감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독 경계선 성격 성향자들이 경험한 공허감의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의 방법인 Giorgi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Giorgi는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분석을 4단계로³⁸⁾ 제시하였다. 첫 단계는 ‘전체를 인식’하는 단계로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듣고 읽음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의미 있는 진술들이나 문장들을 가지고 ‘의미단위로 구분’한다. 의미 단위는 연구자가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심리학적 태도를 가지고 연구 참여자의 기술 내에서 지각된 구별이다. 이 때 연구자는 주제와 관련된 모든 의미 있는 진술을 나열하고 동일한 가치를 부여한다.³⁹⁾ 세 번째 단계는 ‘의미 단위를 조합하여 주제화’ 시킨 후, 연구자의 사유와 성찰, 통찰, 반성을 통하여⁴⁰⁾ 주제 안에 담겨진 중심의미를 학문적 용어

36) 박승억, 『후설 & 하이데거 현상학 철학의 위기를 돌파하라』 (파주: 김영사, 2007), 67-70.

37) H. Fein, *Husserl's Phenomenology*, 김영필 역, 『후설: 현상학의 위기』 (서울: 형설 출판사, 1991), 23-31.

38) A. Giorgi,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외 공역,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서울: 현문사, 2004), 19, 21-31, 58-69.

39)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328.

40) 김병찬, “교육행정학 연구의 질적 연구 방법”,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제18권 2호(2010): 134.

로 변경시킨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중심의미를 구조적으로 통합’ 한다. 연구자는 도출된 상황적 구조를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한다.

경계선 성격 성향자들이 경험한 공허감의 의미와 본질은 ‘무에 대한 자각’으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텅 비어 강렬한 고통을 느끼거나 정서의 마비’를 경험한다는 것이었다. 무에 대한 자각은 ‘무망감으로 인한 고통’, ‘삶의 의욕 저하’, ‘비존재적인 느낌’, ‘불안정한 신앙’, ‘자신감 결핍’, ‘관계의 어려움’, ‘삶의 통제력 상실’, ‘반복적인 자살사고’, ‘중독 경향성’을 보인다.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공허감

하위 구성요소	구성요소
아무 것도 없이 텅 비어 있음	무(nothingness)에 대한 자각
아무도 없는 또는 혼자라는 느낌	
채워지지 않는 마음	
둥둥 떠다니는 느낌	
정서의 마비	
유기불안	
불안	무망감(hopelessness)으로 인한 고통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움	
욕구와 기대의 좌절	
무욕감	삶의 의욕 저하
의미 상실	
힘이 없어 무기력 함	
우울, 의기소침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	비존재(non-being)적인 느낌
존재감 결여	
일시적인 신앙의 힘	불안정한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흔들리는 신앙	
자신감 저하	자신감 결핍
열등의식	
자기비하	
자기의 약함	

외로움	관계의 어려움
소속감 결여 및 소외감	
소통의 부재	
대상의 부재	
통제력 상실	삶의 통제력 상실
충동적 행동	
만성적인 느낌	
삶이 힘들기만 함	
죽음을 생각 함	반복적인 자살사고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	
생활의 바쁨과 일로 도피	중독 경향성
알코올에 의존	
과도한 종교생활로 회피	
관계 중독 경향	
기타, 다른 것으로 피함	
신앙으로 힘을 얻음	극복에 대한 기대
사랑, 관심, 인정, 수용 받고 싶음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한 해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1) 무(nothingness)에 대한 자각

(1)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음

내가 애 쓰고 애 쓰고 쫓아가도 실체가 없는 느낌. 신기루와 같은 느낌이에요.... 실체처럼 느끼고 쫓아 가보면 없고, 실체처럼 느끼고 쫓아 가보면 없고, 다가가 보면 없고....길 자체가 없지요.(참여자 1)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니깐 내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붙들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산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없으니깐.(참여자 2)

공허하다는 것은 바다에 있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참여자 3)

(2) 아무도 없는 또는 혼자라는 느낌

아무도 없다는 것. 주변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주변에 애기가 통할 사람도 없고, 나 홀로 혼자 있다는 고독감을 느껴요.(참여자 1)

나 혼자라는 느낌. 사람들과 산책을 가면서도, 사람과 걸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사람이란 건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구나! 그럴 때 공허해요.(참여자 3)

빈 마음..... 비어 있어서 혼자다. 남편도 있고, 엄마도 동생도 있는데, 그 순간에는 아무도 없는 느낌이에요. 내 옆의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요.(참여자 4)

(3) 채워지지 않는 마음

외적으로는 착한 남편에다가 돈도 잘 벌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괜찮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공허감이 있었지요.(참여자 2)

공허한 것은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고, 안 채워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참여자 3)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허한 마음을 그렇게 채우지 못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녔어요.(참여자 7)

(4) 둥둥 떠다니는 느낌

공허하다는 것은 배에 나 혼자 떠 있는 것과 같아요.(참여자 3)

우주에 나 혼자. 저 혼자 떠 있어요. 전 우주에서 요람에서 떠다니는 어디에 정착할지 어디로 떠다닐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참여자 5)

내 영혼 존재 자체도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참여자 6)

(5) 정서의 마비

심할 때는 그런 느낌조차 없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생각해볼 수조차 없어요. 그냥 힘들기만 하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기만 해요.(참여자 1)

공허 할 때는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게 익숙한 거 있잖아요.(참여자 3)

그런데 거기 접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먹먹하고, 행하다는 느낌이 있어요.(참여자 4)

(6) 유기불안

가장 큰 충격은 남자친구 죽고 나서 방에 불꺼놓고 혼자 있었을 때 공허감을 느꼈어요.(참여자 3)

공허감이 강하게 왔을 때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버림받은 거죠.(참여자 6)

어렸을 때부터 혼자 버려진, 버려져 있다는 느낌 속에 항상 있었어요.(참여자 7)

(7) 불안

내가 힘들고, 다닐 때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 좋을 때도 늘 불안했거든요. 좋으면 좋을수록 이걸 아닐 것 같고 불안하고.(참여자 3)

원인모를 불안이 공허감과 함께 근처에 항상 붙어있는 감정이에요. 불안한 상황도 아닌데, 갖다 붙는다고 해야 하나? 불안이 그냥 붙는 거예요.(참여자 4)

공허하다 보면 불안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공허하면서 동시에 불안하고.(참여자 5)

2) 무망감(hopelessness)으로 인한 고통

(1)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움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살만한 소망과 희망이나 가치가 없는 상태예요. 살고 싶지 않고 지금 현재 모든 게 절망적이고 희망을 가져 볼 수 없어요.(참여자 1)

완전 절망이죠. 그게 한 가닥의 빛이라도 있었으면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없으니깐 암흑이야. 암흑천지.(참여자 2)

(2) 욕구와 기대의 좌절

일이 잘 안되거나 내 맘대로 뭐가 잘 안될 때, 공허감을 많이 느껴요. 내 욕구가 내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느껴요.(참여자 1)

숨만 쉬고 있어요. 아주 큰 좌절을 겪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힘들어요.(참여자 3)

어떤 부분에는 그 소망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고 좌절되었을 때, 더 많이 느껴요.(참여자 5)

3) 삶의 의욕 저하

(1) 무욕감(無欲感)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할 의지도 없고 몸이 완전히 어디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심하게 아프면서 허무감을 느꼈죠.(참여자 1)

힘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배가 고프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것조차 없어요.(참여자 3)

(2) 의미 상실

삶에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해 놓은 것이 없고, 지금까지 한 것 없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할까? 무의미하다고 할까? 그런 거죠.(참여자 1)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뭐가 중요하고 대단하고 뭘 어떻게 할 건지 재미가 없는 거죠. 하고 싶은 것도 없고.(참여자 5)

누구에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집안일에서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참여자 8)

(3) 힘이 없어 무기력 함

무기력으로 정말 많이 시달렸고 공허감이 크게 엄습할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손 하나 까딱도 못해요. 공허감을 느낄 때는 진짜 무기력해요.(참여자 1)

힘이 생기지도 않고 텅 비니깐 헛깨비처럼 힘이 없어요. 일어설 수 없

고 누워만 있어요.(참여자 3)

구멍 난 것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무기력하게 돼요. 시무룩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거의 눈에 초점이 없어요. 정신 나가서 멍하고.(참여자 6)

(4) 우울, 의기소침

우울함이 심해서 지속될 때는 오랫동안에는 늘 시달리죠. 우울은 공허감이 근원인 것 같아요. 공허감이 채워지면 우울감이 사라지죠.(참여자 1)

아무런 공급처가 없을 때는 우울함과 침체에 빠지면서.... 시무룩해지고 무기력해지면 심호흡을 해야 돼요. 일단 숨을 못 쉬었어요.(참여자 6)

4) 비존재(non-being)적인 느낌

(1)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라 느껴요. 내 존재가 너무 값어치 없는 존재라고만 느껴졌어요.(참여자 1)

나 스스로도 이 정도밖에 못되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가치 없다는 생각을 했죠.(참여자 2)

두려움, 공포. 내 영은 영혼은 구제받을 수 없는 하찮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참여자 6)

(2) 존재감 결여

어떤 부정적인 요소, 아님 나의 부적절함 그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 다른 것을 하는데, 더 깊은 의미에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요.(참여자 4)

내 존재자체도 느끼지 못하고... 그 존재성과 정체성을 인식을 못하고 지냈기 때문에 자아는 꼭 없어져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참여자 6)

‘나는 왜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결책도 의미도 없고, 내 존재에 대한 의미가 없고. 특별하게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8)

5) 불안정한 신앙

(1) 일시적인 신앙의 힘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한 동안 그 힘으로 기쁘고 충족이 되고, 잘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좌절하고 좌절하면서 또 공허하고...(참여자 1)

제가 버티고 하는 것은 신앙의 힘인 거 같아요. 그나마 제가 현실적인 것을 붙잡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인데...소망은 없지만 하나님으로 소망하고 싶은 거죠.(참여자 5)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막 가슴이 뜨거울 때도 있고... 잠시 동안에는 그랬는데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것은 채울 수도 없고...(참여자 7)

(2)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하나님도 나를 배신한 것 같더라고 내가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대답도 없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밤낮 헤매는데 소리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참여자 2)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영은 영혼은 구제받을 수 없는 하찮아요. 하나님께도 버림당했으니 이제 내가 죽으면 지옥가도 어쩔 수 없구나...(참여자 6)

(3) 흔들리는 신앙

하나님은 어딜 가버렸는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내가 힘드니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 갈등했어요.(참여자 2)

내가 예전에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혹시 나의 환상이 아닐까? 내가 지어낸 거 아닐까? 신비주의에 빠진 거 아닐까? 그럴 때도 있고...(참여자 5)

성경말씀도 못 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가 잔소리로 느껴지고 나를 괴롭히는 소리로 들리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집어넣고 이

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참여자 8)

6) 자신감 결핍

(1) 자신감 저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도 없어요.(참여자 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반응에 민감하고... 제가 가급적 사람들을 접촉을 잘 안 하죠.(참여자 5)

저는 어디 가서 취업을 할까? 며칠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 체력적인 것도 되지 않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돌파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참여자 8)

(2) 열등의식

‘나는 못 낫구나’, ‘못 하는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싸이고 싸이다 보니까 공허감이 심하게 들고 그랬어요.(참여자 1)

‘나는 못났다’는 (생각이) 컸어요. 못났다는 것, 멍청하고 바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조그만 실수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참여자 7)

항상 ‘내가 뭐가 못났을까?’, ‘난 안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좁아파요.(참여자 8)

(3) 자기비하

자신을 굉장히 비하했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가치 없다는 생각을 했죠. 이런 사람은 죽어야 하는구나.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2)

너는 뭐를 해도 그러냐? 또 그렇게 되었네. 이거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다 내가 잘못된 거지. 또 그렇게 되었네. 이거예요.(참여자 3)

나에 대해서 조금 많이 비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때문에 많

이 내 자신이 비하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8)

(4) 자기의 약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참여자 2)

자기 존재라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붙들고 있으면 조금 더 견고해져 불안 안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깐 더 불안정하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참여자 4)

자신이 없으니깐, 힘이 없으니깐, 공기에 먼지같이 날아다니고 힘이 없으니까...(참여자 8)

7) 관계의 어려움

(1) 외로움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내가 외로울 때, 사람을 못 만나고,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게 일이 잘 안되면서 그러면서 더 심하죠.(참여자 1)

사람들과 산책을 가면서도 사람과 걸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사람이란 건 나밖에 없어 외로워요. 저는 외로운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참여자 3)

저는 외로움이 뻗속 깊이에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참여자 7)

(2) 소속감 결여 및 소외감

가끔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도 내가 인정 못 받을 때, 사람들 무리에 서 섞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약간 소외감을 느낄 때, 공허감이 살짝살짝 오죠.(참여자 1)

시장가면 사람보고도 나는 속에서 그런 거 느껴요. 나는 거기 못 들어가요. 동생이랑 엄마랑은 같이 밥상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아, 나는 이 무리랑 낄 수가 없어...(참여자 3)

나는 외계인이고 여긴 우주의 어느 땅이고 나는 외계인 나라에 속한 것 같고...(참여자 8)

(3) 소통의 부재

주변에 얘기가 통할 사람도 없고, 소통이 안 되고, 내 지금 상태를 전달할 수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릴수도 없고... 지지해 주는 사람과의 소통이 필요해요.(참여자 1)

자기와 어떤 대화가 되고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렇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요.(참여자 5)

엄마와 나는 정말 통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통했는데 통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참여자 6)

(4) 대상의 부재

내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깐 그래요. 누군가가 커다란 힘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있다면... 제 편이 없어서 그래요.(참여자 3)

숨을 쉬고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언젠가는 나를 떠날 거고 어차피 나는 또 혼자가 될 거니까. 반응이 없어요.(참여자 5)

받아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소도 비밀 언덕이 있어야지. 근데 저는 아무도 없어요. 우는 것도 누가 봐주고, 알아주고, 들어줘야지 할 수 있는데 정말 안 울어요.(참여자 7)

8) 삶의 통제력 상실

(1) 통제력 상실

내가 그것을 해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노력의 한계, 내 한계로는 따라 갈 수 없어요.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아요.(참여자 1)

왜 내가 이런 사소한 말에 내 감정이 이렇게 휘둘릴까? 이성적으로는 알면서도 그게 또 잘 조절이 안 되는 것을 느꼈죠.(참여자 5)

연구원 갔을 때는 거의 완전 무기력 (했어요). 내 정신력을 조절하기 힘든 상태예요.(참여자 6)

(2) 충동적 행동

느닷없이 약속 없이 친구를 만나거나 느닷없이 쇼핑을 하거나 어디 가서 갑자기 물건을 산다거나 충동적이죠.(참여자 1)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떨고 술 한 잔씩 마시는 것은 그때뿐이죠. 그 다음날이 되면 더 허해져요. 친구 만나고 나서 빈 공간을 오히려 더 확인만 할 수 있으니깐...(참여자 3)

충동적으로 친구들하고 열심히 전화통화도 하고...(참여자 5)

(3) 만성적인 느낌

그냥 열심히 하고 또 허무감을 느끼고, 또 열심히 하다가 허무감을 느끼고 반복적으로 그랬어요. 공허감은 항상 있어요. 그것을 덮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참여자 1)

그냥 삶 자체가 공허한 게 아닌가? 그저 내 삶에 깔려있었지.(참여자 5)

30대, 40대에는 그것을 안 느끼려고 너무 노력하면서 살았고, 그전에는 거기에 파묻혀 살았고요.(참여자 7)

(4) 삶이 힘들기만 함

왜 이렇게 힘들까?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늘 헤매면서 살아야 되나? 계속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내 목숨 자체가, 생존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벅차요.(참여자 1)

차라리 그때 죽게 내버려두시지... 왜 살아가지고 더 힘든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참여자 2)

9) 반복적인 자살사고

(1) 죽음을 생각함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열심히 하고, 또 허무감을 느끼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

고만 싶다. 힘들다. 죽고 싶다.(참여자 1)

죽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삶 자체가 힘들었으니깐, 내 현실이 힘들니깐 자살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방법을 많이 생각해 봤죠.(참여자 2)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괴롭지는 않으니깐. 죽고 싶은 거죠(참여자 3)

(2)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

3년 동안 수면제를 사 모았으니깐 죽음에 대해 충동적인 게 아니었지. 치밀했지.(참여자 2)

공허함에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어서 수면제를 한 통 다 먹었어요.(참여자 3)

칼로 손도 긋고, 점도 파내고, 바늘로 살을 다 찌르고, 열 손가락 다 찌르고, 피 짜내고...(참여자 7)

10) 중독 경향성

(1) 생활의 바쁨과 일로 도피

내 감정에 빠져있으면 너무 힘들니까 일상적인 걸로 그것을 희석시켜요. 바쁘게 일을 하는 거죠.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 며칠씩 일에 빠져서 정신없이 일했어요.(참여자 5)

그런 감정을 안 느끼려고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쓸고 닦고 그러니깐 분주하게 뭔가 움직이고 그랬어요. 자꾸 불안하니깐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7)

(2) 알코올에 의존

공허함에 괴로우면 친구를 만나 술을 먹어요. 먹다보면 많이 먹게 되죠. 술을 먹어도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닌데도 다음 날 또 먹어요.(참여자 3)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고통스럽게 토하고,

또 마시고 토하고, 심하게 마셔 내 몸을 헤치더라도 그냥 내 몸을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참여자 5)

(3) 과도한 종교생활로 회피

신앙을 나의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도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을까 (해요). 믿음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지요.(참여자 1)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인거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참여자 2)

(4) 관계 중독 경향

조금만이라도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는 사람들보다 몇 배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사랑의 중독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발견했어요.(참여자 6)

허전하고 헛헛할 때는 나를 좋아해줬던 사람을 찾아요. 전화도 걸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몇 있어요. 가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좋아요.(참여자 7)

(5) 기타, 다른 것으로 피함

공허함을 느낄 때는 그때그때 나름대로 애써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책을 많이 봤어요. 현실이 아닌 책 속에 빠져요.(참여자 1)

깊고 어두운 음악으로 풀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가득 찬다는 느낌. 그것으로는 완전히 채울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만족감이 채워지니까.(참여자 4)

11) 극복에 대한 기대

(1) 신앙으로 힘을 얻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해본다든가, 순간 힘을 얻기도 하고, 극복이 되고 그래요.(참여자 1)

하나님이 희망이라면 희망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은 분명
하니까, 그제 희망의 끈이라면 끈이죠.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
요.(참여자 2)

(2) 사랑, 관심, 인정, 수용 받고 싶음

나를 알면서 나를 완전히 수용해 줄 수 있고,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허감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참여자 1)

원가족에게서 진짜 본질적인 것, 진짜 참사랑이라든지 그것을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함에 끊임없이 힘들어하며 살았던 거예요.(참
여자 6)

사랑 못 받은 것, 그제 배려, 사랑, 따뜻함 이런 게 형성이 안 되었기에
내 자신은 병들었고... 병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계속 끌고 가다 보
니 힘들었어요.(참여자 8)

(3)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한 해결

저 같은 경우에 상담 선생님한테 지지 받는 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것이 채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허감이 사라졌죠.(참여자 1)

어느 날 녹색 불이 ‘딩동’ 하고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러
면서 두려움과 공허함도 없어졌어요. 제 안에 사랑이 충만해졌어요.(참
여자 5)

(4)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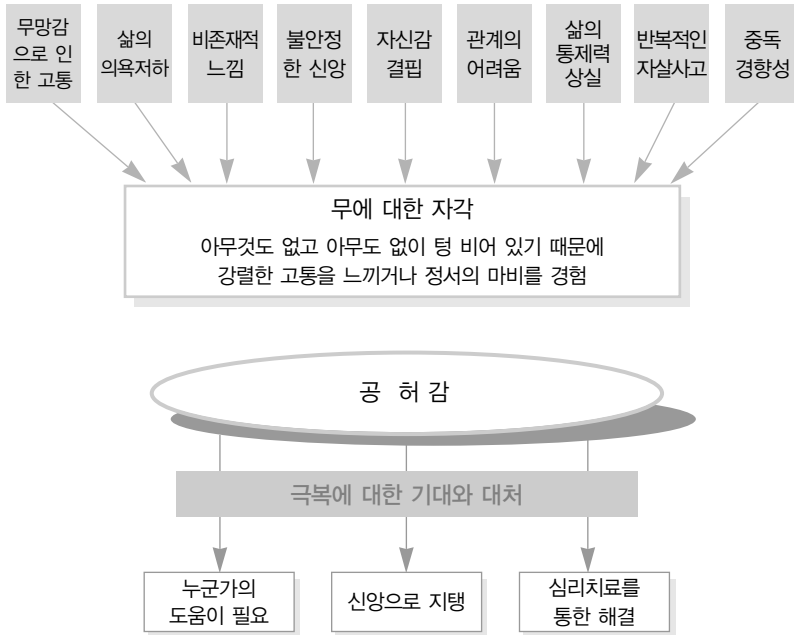
일단은 건져내고... 누군가는 나를 건져주고, 건진 다음에 힘을 기르
는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건지지 않은 상태에는 혼자서 못
하죠.(참여자 1)

한줄기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이든 신이든 누군가가 내게 도움의 손길
을 내민다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빛이 삶에 비춰주면 희망이 생기잖
아요.(참여자 2)

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존재가 있는 그 누군가가 저와 같이 있다면,
우주에 떠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숨, 생명, 존재... 숨 쉬는 누군가 필

요해요.(참여자 5)

연구 결과, 기독교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이 경험한 공허감에 대한 본질의 구조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독교 경계선 성격 성향자들이 경험한 공허감에 대한 본질의 구조

III. 닫는 글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자들이 경험하는 대상 세계는 좋지가 못하다. 초기 박탈과 좌절은 긍정적 내사물의 축적을 방해하고, 구조적 자아의 결함을 가져오게 되어, 그 결과 경계선 성격 장애를 초래한다. 경계선 성격 장애의 주된 방어기제인 분열은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을 통합시키지

못하게 하며 관계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들은 타인 및 외부세계와의 과거경험들이 만족스럽지 못해 현재와 미래의 관계와 가치에 재투자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다. BPD 성향자들은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위협을 받거나 유기를 경험하여,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주관적 공허감을 느낀다. 주관적 공허감 체험은 자기 표상 및 대상 표상과의 정상적 관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을 나타낸다. 통합된 자기가 결여되어 있고 자기와 통합된 내적 대상과의 정상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을 때, 뿌리 깊고 만성적인 공허감의 느낌을 갖는다. 따라서 외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힘과 타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이 고갈되어 있어 악순환을 반복하는 패턴 등이 발견되었다.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자가 경험한 공허감의 핵심에는 무에 대한 자각이 있다. 이들은 아무 것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어서 고통을 느끼고 고통으로 인하여 정서의 마비를 경험한다. 삶의 초기 경험은 유기와 학대 등을 통한 좌절 경험 등의 영향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갖지 못하며, 좋은 대상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BDP 성향자들은 만성적인 공허감을 바탕으로 하는 정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간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내적 대상의 상실로 자신에게 관계할 수 있는 누구도 없다고 느끼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것도 없어서 텅 비어있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느낌은 그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의미하며 고통의 정도는 크고도 강렬하여 견디기가 쉽지 않다. 자신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삶의 희망도 의욕도 상실되며 자아의 약함으로 이러한 경험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된다. BPD 성향자들은 분열된 내적 구조의 파편화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돈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느낌을 가지며 자신감을 잃고 삶의 통제력을 상실한 채, 반복적으로 자살에 대한 사고를 하거나 중독 경향성을 보인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

을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초기 대상관계에서의 좋지 못한 경험은 부정적 관계 경험에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극복할만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대상과 충분히 좋은 환경적 돌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못할 선한 대상으로 존재하신다. 기독교 상담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야말로 BPD성향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그림자에 불과한 불완전한 자기대상(selfobject)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자기대상의 관계이기 때문이다.⁴¹⁾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무한히 선하시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득할 수 있다면 그들의 내적 대상세계는 변화할 수 있으며, 좋은 대상 이미지를 중심으로 좋은 자기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좋고 나쁜 자기 이미지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대상 이미지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선한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내재화하는 일은 내적 대상세계에서 긍정적 내사물을 축적하는 일로 좋은 내적 대상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내적으로 좋은 대상을 가지게 될 때, 이들은 더 이상 아무도 없다고 느끼지 않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족스러운 관계경험은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자기 가치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안정된 정체감의 근원으로 자리잡게 될 수 있다.⁴²⁾

경계선 병리에서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마도 부정적인 내사물

41) 김미경, “교회공동체의 치유설교를 위한 심리학적 성경해석의 가능성과 전망: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23권1호(2015): 89.

이 양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이다. 과도한 부정적 내사물은 기질적으로 결정된 공격적 욕동 파생물의 강도와 심각한 초기 좌절로부터 유래할 수 있다.⁴³⁾ 초기 좌절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내사물은 좋은 내사물을 형성할 수 있는 심적 공간이 제공된다면 그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좋은 대상에 의한 긍정적 내사물의 축적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로 선하고 좋은 대상이시다. BPD성향자들은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실재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을 자녀로 여기신다. 신성한 존재와 만나는 경험은 필수적으로 자아의 변형을 가져온다. 개인은 삶의 원천으로 돌아가 신성한 존재와의 동일시를 체험함으로써 그 일부를 내사하여 변화가 수반된다. 이것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경험으로 돌아가 존재의 방식을 변형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한편, BPD성향자들이 가진 정체성 혼돈은 자아의 파편화에 기인한 것이다.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이 야기되었다. 인격의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상태가 깨지고 파편화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⁴⁵⁾ 자아의 파편화로 인하여 자아 경계가 확고하지 못하며, 자아 경계의 형성은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의 분화에 달려 있다. 자기표상과 대상 표상의 과도한 융합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만족을 주는 환경이 중요하다.⁴⁶⁾ 기독 상담자는 기독 BPD성향자들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충분히 좋은 환경적 돌봄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 제공되면 좋은 내적 자기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이들이 경험하는 공허

42) 김미경, “교회공동체의 치유설교를 위한 심리학적 성경해석의 가능성과 전망”, 94.

43) Kernberg, 『대상관계이론과 임상적 정신분석』, 48.

44) James William Jones, *Contemporary Psychoanalysis & Religion: Transference and Transcendence*, 유영권 역, 『현대정신분석과 종교』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182-184.

45) Alfred Lechler, *Leg deine Nerven in Gottes Hand*, 김성민 역, 『신경증의 치료와 기독교 신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4.), 5.

46) Kernberg, 『대상관계이론과 임상적 정신분석』, 142.

감 속의 텅 비어 있는 느낌은 자기 안에 좋은 것이 없다는 느낌과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반영을 받게 되면 자기 안에 채워지는 느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과 함께 자신감을 얻으며, 삶에 대한 희망과 삶의 통제력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공허감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 이들도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 긍정적 사건들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삶의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⁴⁷⁾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인 개인의 실존을 신앙적인 안목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공허가 아닌 행복의 위대한 역량을 함양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47) 노지혜 · 이민규, “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안녕感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회논문집」(2005): 454-455.

【 참고문헌 】

- 권석만. 『현대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5.
- 김미경. “교회공동체의 치유설교를 위한 심리학적 성경해석의 가능성과 전망: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 23권1호(2015): 75-101.
- 김병찬. “교육행정학 연구의 질적 연구 방법”.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제18권 2호(2010): 131-184.
- 노지혜, 이민규. “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회논문집」(2005): 454-455.
- 박승억. 『후설 & 하이데거 현상학 철학의 위기를 돌파하라』. 파주: 김영사, 2007.
- 신경림. 『질적간호연구방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 조성호. 『경제선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2000.
- 홍상환 · 김영환. “경제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7권 1호(1998): 259-27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 Creswell, J. W.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2nd ed. 조홍식 외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13.
- Ekstein, R. “Vicissitudes of the ‘Internal Image’ in the Recovery of a Borderline Schizophrenic Adolescent.”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19(1955): 86-92.
- Fairbairn, R. D.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이재훈 역.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연구』.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2003.
- Fein, H. *Husserl's Phenomenology*. 김영필 역. 『후설: 현상학의 위기』. 서울: 형설출판사, 1991.
- Frosch, J. “The Psychotic Character: Clinical Psychiatric Condition.” *Psychiatric Quarterly* 38(1964): 81-96.

- Giorgi, A. "A Way to Overcome the Methodological Vicissitudes Involved in Researching Subjectivity." *Journal of Phenomenological* 35, no.1(2004): 25-50.
- Giorgi, A.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신경림 외 공역. 서울: 현문사, 2004.
- Jones, J. W. *Contemporary Psychoanalysis & Religion: Transference and Transcendence*. 유영권 역. 『현대정신분석과 종교』.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 Kernberg, O. F. *Object Relations Theory and Clinical Psychoanalysis*. New York: Jason Aronson, 1976.
- Kernberg, O. F. *Internal World and External Reality*. New York: Jason Aronson, 1985.
- Kernberg, O. F. *Internal World and External Reality*. 이재훈 역. 『내면세계와 외부현실』.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1.
- Kernberg, O. F. *Object Relations Theory and Clinical Psychoanalysis*. 이재훈 · 양은주 역. 『대상관계이론과 임상적 정신분석』.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 Kernberg, O. F. *Aggression in Personality Disorders and Perversions*. 이재훈 · 박동원 역.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8.
- Kernberg, O. F.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윤순임 외 공역,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서울: 학지사, 2014.
- Klonsky, E. D. "What Emptiness? Clarifying the 7th Criterion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22, no.4(2007): 418-426.
- Kohut, H. *The Restoration of the Self*. 이재훈 역. 『자기의 회복』.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6.
- Lechler, A. *Leg deine Nerven in Gottes Hand*. 이재훈 역. 『신경증의 치료와 기독교 신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4.
- Masterson, J. F. *Search for the Real Self*. 임혜련 역. 『참자기』.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 Meissner, W. W. *Psychotherapy and the Paranoid Process*. 이재훈 역. 『편집증과 심리 치료』.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 Mitrani J. L. *A Framework for the Imaginary*. 이재훈 역. 『상상을 위한 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15.
- Morey, I. C.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1.
- Noble, D. "A Study of Dreams in Schizophrenia and Alli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7 (151): 612-616.
- Schmideberg, M. "The Treatment of Psychopaths and Borderline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1947): 45-55.
- Stern, A. "Psychoanalytic Investigation and Therapy in the Borderline Group of Neuroses." *Psychoanalytic Quarterly* 7(1938): 469-489.
- Summers, F. L. *Object Relations Theories and Psychopathology*. 이재훈 역.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4.
- Trull, T. J.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1995): 33-41.
- Weissman, M. M. "The Epidemiology of Personality Disorder." In *Psychiatry*. Eds. R. Michels, A. M. Cooper, S. B. Guze, L. L. Judd, A. J. Solnit, A. J. Stundard, & M. M. Weissman. Philadelphia: Raven-Lippincott, 1993, 1-11.
- Yeomans, Frank E. John F. Clarkin, & Otto F. Kernberg. *A Primer of Transference-Focused Psychotherapy for the Borderline Patient*. 윤순임 외 공역. 『경계선 내담자를 위한 전이초점 심리치료 입문』. 서울: 학지사, 2013.
- Zittel, C. & D. Western.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Findings o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What Every Clinician Should Know." *In Session Psychotherapy in Practice* 4, no.2(1998): 5-20.

【 Abstract 】

Emptines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endencies and Christian Counseling

Jae Soon Lee & Mi Kyung Kim

Seoul Hanyoung Univers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a sense of emptiness experienced by borderline personality, this study researched eight samples with raw score for 39 & up, considered as a group experiencing similar problems with the experience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th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cale(PAI-BOR). Regard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ccording to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ology, first, the overall contents were understood to cognize the whole by repetitively reading the text. Analysing phenomenons suitable for a sense of emptiness in the unit of meaning, and also topicalizing the unit of meaning into academic terms, total 39 sub-elements were drawn. Those 39 sub-elements were integrated into 11 element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like below: 'self-awareness of none', 'pain caused by hopelessness', 'decline of desire for life', 'non-being like feeling', 'unstable faith', 'lacking in confidence', 'difficulty in relationship', 'loss of life control', 'repetitive suicide incident', 'tendency to addiction', and 'expectation about overcoming'. Like this, as the core of a sense of emptiness experienced by people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endency is the self-awareness of none, they experience the paralysis of emotion. In other words, as their internal structure was fragmented by the absence of experience in good objects, they experienced the confusion of identity, instability of emotion, and difficulty in relationship. Based on such results, the Christian counseling was discussed to relieve a sense of emptiness of people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endency.

Key words: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emptiness, phenomenology, paralysis of emotion, confusion of identity